

태양광·풍력 발전의 그늘... 도시 빛날 때 농어촌은 '신음'

신재생에너지 각축장 된 전남, 공동체 갈라지고 농어민 설 곳 없어
'신안군 이익 공유 모델' 대안으로 ... 대책위 "공공 주도로 추진해야"

전남 농어촌 곳곳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각축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인구 감소, 고령화 등에도 불구하고 식량 생산 기지 역할을 해온 농어촌이 이제는 도시에서 소비되는 에너지까지 책임지게 됐다. 하지만 풍력, 태양광 등의 발전 시설로 전통적인 농어촌 경관이 크게 변모·훼손되는 것은 물론, 이권과 보상을 둘러싼 갈등까지 빚어져 공동체가 파괴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체계적이며 전략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스템의 적용과 함께 기존 농어촌의 기능과 역할을 유지

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점진적인 신재생에너지 시설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농어민 사이에서 터져나오는 이유다. 신안군이 지난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제정한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모델로 해 발전에 따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기준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일선 시·군이 민간 사업자들의 '산지 태양광 설치 신청'을 반려하면서 농지나 염전을 대상으로 한 태양광·해상풍력 인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전체적인 민원은 2018년

169건에서 2019년 116건, 2020년 92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허가 면적이 과거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농어촌 곳곳이 태양광과 풍력 발전시설로 급속히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 전남도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의 전통적인 경관이 하루아침에 변모하고, 대규모 발전 시설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농어민들 역시 급증하면서 농어촌 곳곳에 생채기를 남기고 있다.

'농어촌 파괴형 풍력·태양광 발전 반대 전남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지난 2월 말 조사한 결과, 전남 13개 시·군 38개 지역에서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사업 추진으로 인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화순 동면·동북·청풍면, 순천 낙안·별량면·서면·삼계동, 장흥 유지 등 풍력발전 관련 분쟁이 많았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 주민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어촌 공동체

가 갈라지고 농촌 들판과 어촌 염전, 어장 등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 이 단체의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조례를 통해 발전사와 주민 간 이익을 공유하는 '신안군 이익 공유 모델'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신안군은 지난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조례를 근거로 사업에 참여한 2900여 명의 주민들이 지난 4월 개발이익 배당금(일명 태양광 연금, 1인당 12만~51만원)을 받으면서 호평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여전히 사업에 주민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시스템, 이익 배분 역시 주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 대규모 사업으로 농수축산물 생산기 지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 등 보완해야 할 부분도 한둘이 아니다.

박형대 대책위 정책위원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풍력, 태양광 발전소 사업 허가를 너무 쉽게 내주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우선 순위로 두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법률, 시행령, 규칙으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민간이 아닌 공공 주도로 사업 추진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어촌 파괴형 풍력·태양광 발전 반대 전남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전국의 농어민단체 대표 99명은 12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를 찾아 농어촌 파괴형 에너지 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전국단위 집회를 열고 "민간 자본 위주의 사업 방식을 공영화로 변경하고, 무분별한 발전사업 허가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이틀간 광주 38명·전남 21명 코로나19 매일 두자릿수 확진

광주, 유흥업소 관련 쏟아져
전남, 동부권 중심으로 확산

광주와 전남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 11일과 12일 이틀간 광주에선 38명이 나왔고 전남에선 순천과 여수 등 동부권을 중심으로 21명이 쏟아졌다. <관련기사 2면>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에선 지난 10일 2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11일 오후 2시까지 15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광주의 누적 확진자는 2533명으로 늘었다.

오후 2시 기준 신규확진자 15명은 상무지구 유흥업소 관련 4명, 서구 카드사 콜센터 관련 3명,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2명,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유증상 검사자 6명 등이다.

최근 1주일간 하루 확진자는 5일 8명, 6일 21명, 7일 5명, 8일 6명, 9일 9명, 10일 24명 등으로

확산세도 심상치 않다. 전남에서는 지난 11일 1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12일 오후 5시까지 11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다. 이로써 전남의 누적 확진자는 1189명이 됐다.

이틀간 신규 확진자는 여수 8명, 순천 6명, 광양 4명, 구례·완도·담양 각 1명이다.

여수는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 코호트 격리된 요양병원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순천에서는 일가족 5명(1171~1175번)이 확진됐으나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달 들어 40명 이상 확진자가 쏟아진 고흥군에서는 이들 연속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한편 전남 방역당국은 이달 들어 여수(유흥주점 관련)와 고흥(공무원 관련)을 휩쓴 코로나 19는 변이 바이러스가 아닌 것으로 질병관리청 분석을 거쳐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대구·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대구 정치권 달빛내륙철도로 상생 국회의원 16명 "영호남 대통합 철도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해야"

광주와 대구의 정치권이 모처럼 영호남 상생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광주·대구 국회의원 16명은 11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영호남 대통합 철도이자 국가균형발전 대표 노선인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대한 여야와 영호남 사·도민들의 요구에 정부가 응답할 때"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3면>

앞서 정부가 진행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공청회에서 달빛내륙철도 계획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광주·전남 61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이날 기자회견을 여는 등 양 지역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이번 광주·대구 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송갑석(서구갑) 위원장을 비

롯해 윤영덕(동남갑), 이병훈(동남을), 양향자(서구을), 조오섭(북구갑), 이형석(북구을), 이웅빈(광산갑), 민형배(광산을) 의원 등 광주지역 8명 국회의원과 주호영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김용판, 홍석준, 윤재욱, 양금희, 김승수, 강대식, 김상훈 의원 등 대구지역 8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들 의원은 "1~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4회 연속 사실상 미반영 사업인 추가검토사업에 머무른 철도는 달빛내륙철도가 유일하다"며 "경제성 증적이 불가능한 지방의 현실은 무시하고 필요성의 여지만 남겨놓으며 20여년간 '희망고문'을 하고 있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핵심적인 정책목표는 주요 거점 도시간 2시간대 철도망 연결과 국가순환철도망 구축"이라며 "영호남 동서 연결을 외면하고 수도권을 향한 남북축 중심의 계획만 반영되어서는 국가최저기준 철도망의 정책 목표를 실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달빛내륙철도는 광주, 대구 뿐만 아니라 울산, 부산까지 연결된 지역산업이 연계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남부지역 광역경제권 활성화의 잠재력이 높은 노선이다"고 강조했다.

송갑석 위원장은 "이번 기자회견은 헌정사상 최초로 광주와 대구 국회의원이 손을 맞잡고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크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광주와 대구가 함께 뛰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더 나은 비전을 찾기 위한 도전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오월정신 씨앗 뿌리는 교사들	▶6면
KIA 좌완 마운드의 미래 김유신·장민기	▶18면
신 전남인 - 영광 대마면 이재명씨	▶22면

AI 를
중심으로 심장을 뛰게 할 당신의
도전을 시작하세요!

2021 AI창업 경진대회

참가대상 AI 관련 예비창업팀 (2인 이상의 팀 구성)

참가신청 AI 관련 제품·서비스의 제작, 창업 및 사업화 계획

접수기간 2021. 5. 10.(월) - 5. 28.(금) [15시까지]

수상혜택 수상팀 AI 시제품·서비스 제작 지원 (총 500백만원)

구분	상명	수상팀 수	시제품 제작 지원금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1개 팀	팀당 100백만원
최우수상	광주광역시장상	2개 팀	팀당 75백만원
우수상	정보통신진흥원장상	3개 팀	팀당 50백만원
장려상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상	4개 팀	팀당 25백만원

접수방법 제출서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www.aica.gj.kr)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서류를 작성 후 제출

접수방법 이메일접수 : ganada4043@hanmail.net

담당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창원지원팀